

■ 특특뉴스

6월3일 대선일, 택배기사들도 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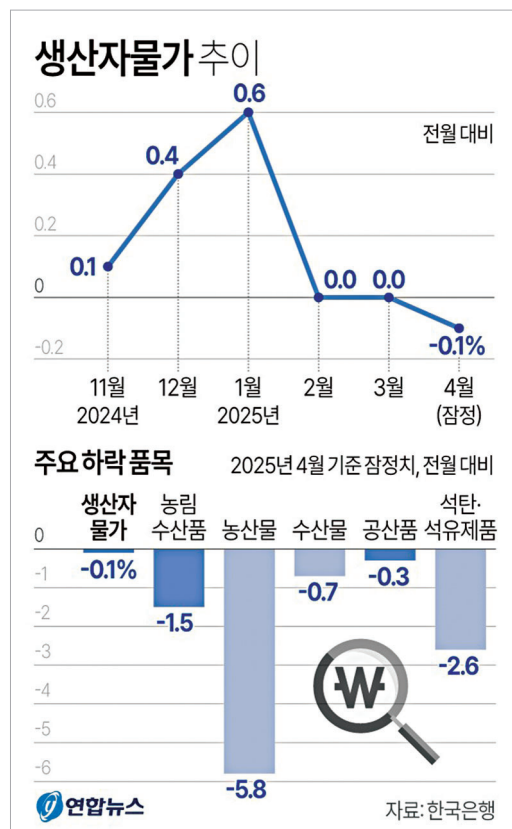
오는 6월 3일 대선일에 쿠팡을 포함한 대다수 택배기사가 휴무와 함께 참정권을 보장받게 됐다.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사들은 대선일에 휴무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쿠팡은 주간배송 기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무를 보장해 로켓배송이 처음으로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 때문에 다른 택배사들도 주7일 배송을 시작했으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6월 3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택배사들은 휴무를 결정했으며 쿠팡도 주간 배송을 멈추기로 했다.

■ 그래픽 경제



4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농산물 출하량 증가, 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 달 생산자물가가 소폭 떨어졌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20.36)보다 0.1% 낮은 120.24(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내수 찬바람’ 광주 생활 밀착업종 줄폐업 빨간불

국세통계포털 사업자 현황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내수·소매에 찬바람이 불면서 생활과 밀착된 점포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 포화상태에 소비까지 감소해 카페 수는 올해 첫 하락세로 전환했고 음식점·주점, 도·소매 업종까지 급감하는 등 자영업자들에게 줄폐업 경고등이 켜졌다.

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광주 소재 커피음료점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곳 줄어든 2,746개로 집계됐다.

카페는 현대인들의 커피 소비량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당시 설 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창업에 나섰던 대표 업종이다. 대표적인 불황형 창업 업종으로 손꼽힌다. 커피음료점은 지난 2023년 4,664개, 2024년 2751개 등 급격히 늘

커피음료점 올해 첫 감소세 돌입

주점·음식점·도소매 점포도 ↓

었으나 사업자 간 과당경쟁 등으로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먹거리를 판매하는 요식업계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치킨·피자·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등 패스트푸드점은 1,427개에서 올해 1,413개로 줄었고 점포가 가장 많은 한식음식점은 173개 감소해 1만 710곳이 남았다.

중식·기타외국 음식점 점포 감소율은 각각 4.9%(-28곳)·5.3%(-28곳)다. 기타음식점은 673개에서 13.6% 줄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과점은 10곳, 분식

점은 74곳 줄어 1,419개만 운영중이다.

희식 문화 변화 등 음주 감소 영향에 호프 주점은 1,646곳에서 1,508개로 감소했고 간이주점은 114곳에서 12개 줄었다.

부동산 불황에 부동산 중개업은 지난해 4,717개에서 무려 203개 급감했다. 대표적인 자영업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편의점마저 1,354곳에서 1,328곳으로 감소했다.

이외에도 △식료품가게(1,396곳→1,330곳) △신발가게(181곳→165곳) △옷가게(2,865곳→2,752곳) △슈퍼마켓(760곳→743곳) △생선가게(364곳→356곳) △건강보조식품가게(660곳→603곳) △화장품가게(1,236곳→1,171곳) 등 도·소매업종에서 줄폐업 현상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은퇴 이후 직업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고령층이 치킨집·식당·편의점 등 각

종 자영업에 뛰어들었으나 시장 포화에 내수 침체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가 보편화한 가운데 플랫폼 업체 비용이 자영업자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산업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1년 전보다 0.72% 감소한 약 4,179만원으로 집계됐다.

술집(-11.1%)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분식(-7.7%), 제과점·디저트(-4.9%), 패스트푸드(-4.7%), 카페(-3.2%) 등도 일제히 매출 하락세다.

올해 들어 정부에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급증했다. 1분기 원스톱폐업지원 신청건수는 2만 3,785건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64.2% 늘었다.

홍승현 기자

전남 TP 지원사 ‘배이산업’ 친환경 HDPE 선박 동남아 첫 수출

말레이시아 해군 구조정 4척 공급

(재)전남테크노파크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국제 해양·항공전시회(LIMA 25)’에서 전남 친환경 HDPE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지원사인 ‘배이산업’이 현지 해양방위 전문기업과 HDPE 구조정 4척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배이산업을 비롯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했다. 국내 중소 조선기자재 기업의 기술력을 해외에 소개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배이산업은 독자 개발한 6m급 고속단정 ‘RHB600’ 모델을 전시하고 고강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를 적용한 선박·구조정·경비정 등 다양한 특수 목적선을 선보였다.

전남TP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벤처부와 전남도(목포·여수·영암)의 지원을 받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FRP 어선을 대체할 수 있는 HDPE를 이용한 친환경 어선을 개발중이다. 배이산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이 특구사업자로 실증



전남TP 지원사인 ‘배이산업’이 최근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전시회에 참가해 현지 해양방위 전문기업과 HDPE 구조정 4척 수출계약을 체결했

전남TP 제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성과로 배이산업은 말레이시아 해군의 협력사인 TMM(TARGET MEGA MARINE SDN BHD)과 구조정 4척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선박은 말레이시아 해군의 3,000톤급 잠수지원정 ‘MEGA BAKTI’에 탑재돼 해양 구조 및 잠수 임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TMM은 2010년 설립된 ‘TRSB’의 자회사다. 말레이시아 해군의 잠수함 탈출 및 구조 시스템 프로젝트를 12년간 수행해온 동남아시아 대표 해양 구조 전문기업이다.

배이산업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HDPE 선박의 기술력과 친환경 경성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

이라고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 총괄 관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이번 배이산업의 수출계약 성과로 HDPE소형어선의 동남아시아 등 해외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HDPE선박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친환경 선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경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아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사청) 062)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